

2026.07.14 | 장마감 리포트

글로벌 마켓 브리핑: 지정학적 도미노와 시장의 양극화

매크로 충격이 촉발한 글로벌 기술주 조정과
한국 증시의 차별적 디커플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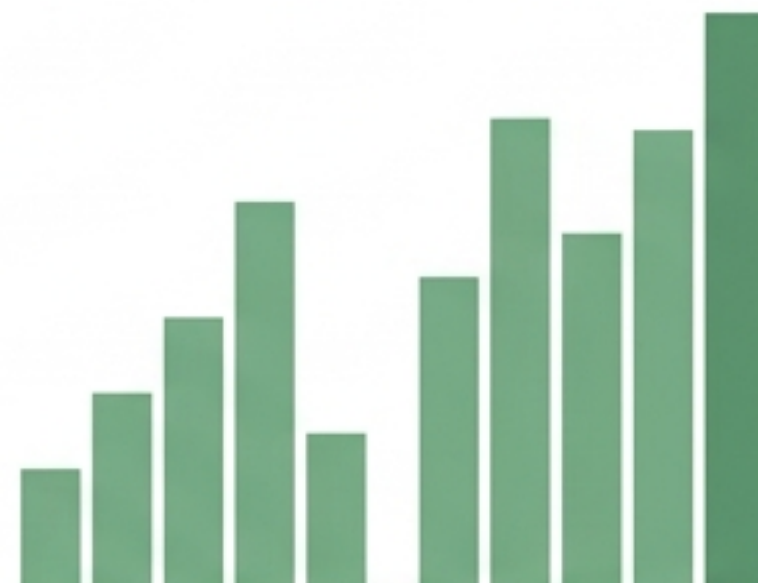
매크로 충격

미-이란 호르무즈 해상봉쇄
위협으로 WTI 원유 10%
폭등(\$64.89).
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로
미 국채 10년물
4.537% 상승(+5bp).



기술주 양극화

신용잔고 급증(54%)에 따른
미 나스닥 투심 악화(-1.55%)
및 SK하이닉스 ADR 상장 첫날
급락(9~15%). 반면, 국내
코스피는 기관 순매수로
반도체 저가 매수세 유입.



자본의 이동

로베코(Robeco) 운용 등
기관의 아시아 저평가론 대두.
방산, 에너지, 해운 섹터로의
피난 자금 유입 지속.

Geopolitical Trigger

미-이란 호르무즈
통행료 예고 및
해상봉쇄 위협.

Energy Spike

국제유가(WTI) 하루
만에 최고치 도달.
현재가 **\$64.89**
(**+\$2.62**, 장중 **~10%**
폭등).

Yield & Spread Expans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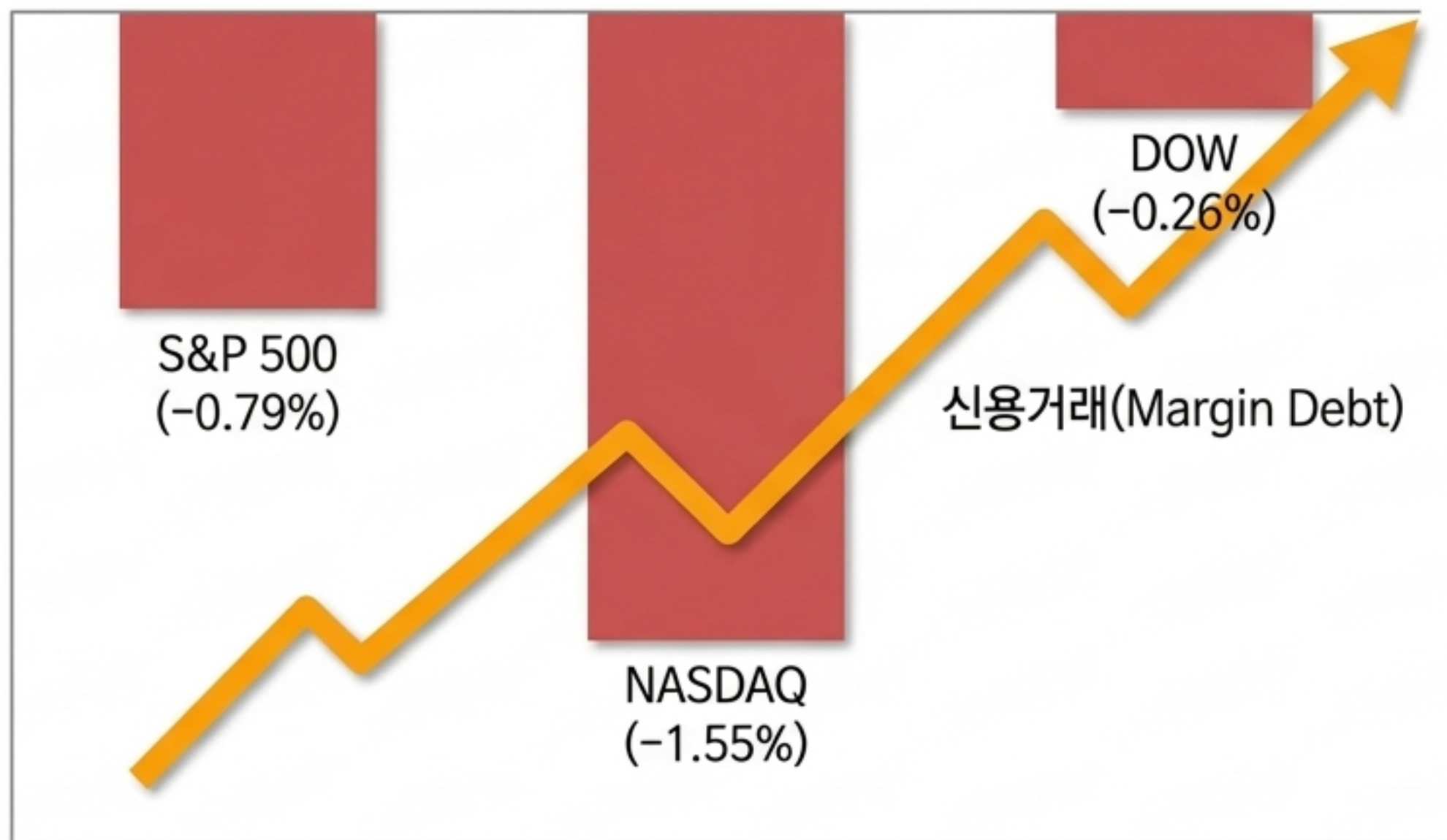
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.
미 국채 10년물
4.537% (+5bp) 상승
및 국고 3년물 **5.8bp**
확대.



Risk-Off / Tech Selloff

위험 선호 위축.
밸류에이션 부담이 큰
나스닥 **1.55% 하락**.

미국 증시 진단: 레버리지 부담과 ADR 쇼크



빚투(신용거래) 1년 새 54% 폭증. 2분기 실적 및 물가 불안감과 맞물려 금융위기급 레버리지 리스크 부각. 투심 악화 지속.



SK하이닉스 ADR 쇼크

나스닥 상장 첫날, 흥행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발표 직후 최대 15% 폭락 (종가 기준 9.32% 급락).

국내 증시 개장 전
기술주 투자 심리에 직격탄.

글로벌 마켓 매트릭스: 차별화된 시장 반응

REGION (지역)	RETURNS (수익률)	KEY DRIVERS (주요 동인)	SENTIMENT (センチメント)
미국 (US)	하락 주도	물가/금리 불안, 레버리지 축소	Risk-Off
중국 (China)	상하이 +0.45%, 선전 +0.62%	본토 증시 정상 거래 유지	Neutral
유럽 (EU)	STOXX 50 +0.62%, DAX/FTSE 보합	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, 방산주 강세	Defensive/Risk-On
일본/호주 (APAC)	닛케이 +0.01%, ASX 200 +0.52%	엔화 약세 기반 수출주 강세(일본), 자원주 중심 상승(호주)	Rotational

글로벌 패닉 셀링이 아닌, 미 기술주 중심의 고평가 해소 과정.
아시아 및 유럽은 방어적 강세 시현.

국내 증시 디커플링: 냉온탕을 오간 수급의 양극화

KOSPI: 6,856.83 (+0.73%)

‘기관의 방어선’

장중 6400선 붕괴 위기를 딛고 반등.

기관 533만 주 순매수  (개인 413만 주, 외국인 113만 주 순매도)

삼성전자/하이닉스
저가 매수세가 지수 견인.

향후 6800~6900선 관망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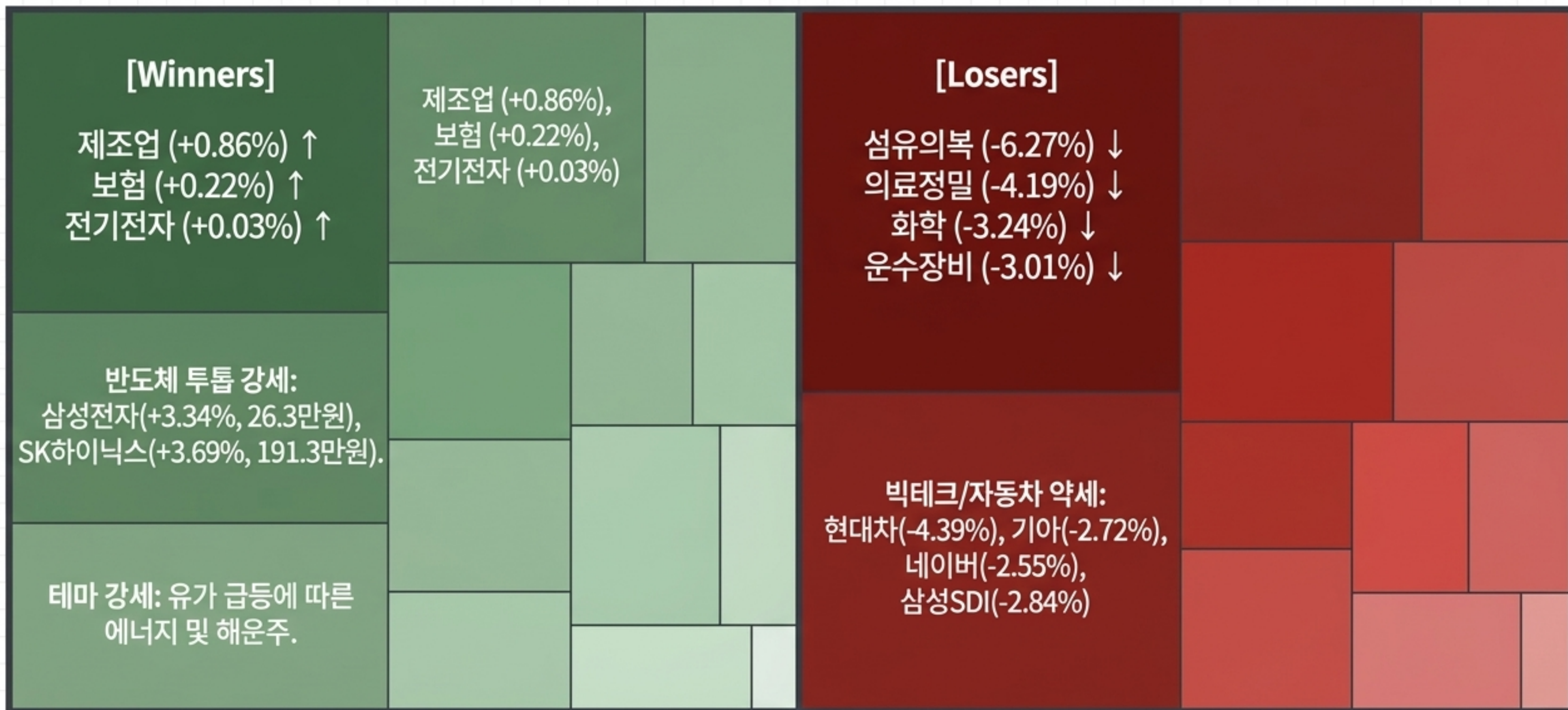
KOSDAQ: 783.98 (-1.92%)

‘차익실현의 직격탄’

매도 사이드카 발동되며
연중 최저점(연저점) 기록.

개인 및 외인의 투심 악화로
추가 하락 압력 주의.

국내 섹터 맵: 매크로가 가른 승자와 패자



FICC 복합 시그널: 안전자산의 엇갈린 행보

WTI 원유

\$64.89 (+\$2.62)



해상봉쇄 위협에 10%대 폭등.
시장 최대 리스크 요인.

미 국채 10년

4.537% (+5bp)



인플레이션 경계감 및 FOMC 매파 기조 반영.

원/달러 환율

₩1,490.67 (-5.30원)



유로 강세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(-0.32)의
영향으로 원화는 소폭 강세 방어.

금 (XAU)

\$4,985 (+\$18)



글로벌 현물은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했으나,
국내 금 시세는 순금 매도 확대로
8개월 저점 붕괴.

비트코인

\$500 (+\$1,240)



ETF 순유입 지속되며 극단적 변동성 시현.
(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교차 구간).

기관 뷰 (Robeco): 아시아 증시 재평가 국면

반도체 피크아웃 반론

AI 쏠림은 경계해야 하나,
반도체 산업 자체의
피크아웃은 아니다.
단기 조정은 오히려
비중 확대 기회.

자본의 이동

구조적 저평가 매력

한국 및 아시아 증시는 기업 이익
성장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.
미국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
하반기 완만한 상승과
재평가(Re-rating) 여력 충분.



[Tactical Shift]

AI 쏠림 조정 시, 소비재 및 헬스케어 섹터로의 분산 투자 필수.

주간 촉매 레이더 (7/14 ~ 7/20)

	오늘 7/14 (Sun)	월 7/15 (Mon)	화 7/16 (Tue)	수 7/17 (Wed)	목 7/18 (Thu)	금 7/19 (Fri)	토 7/20 (Sat)
Inflation Truth (물가의 진실)		 미 6월 CPI (예측: 3.8% YoY / -0.1% MoM). 위험자산 재진입 여부를 결정할 핵심 지표.		 미 6월 PPI.			
Central Bank Moves (통화정책 기조)					 한국은행 금리 결정 (이전 2.50%).  연준 베이지북 및 신규 실업수당청구.		
Macro Growth (매크로 성장 동력)				 중국 2분기 GDP (이전 5.0%) 및 산업생산. 한국 실업률.	 미 6월 소매판매 및 현대차/기아, LG엔솔 실적발표.		

핵심 관전 포인트 및 전술적 대응



Hold the Line on Semis (반도체 방어선 구축)

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방
지지력이 확인됨.

나스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, 코스피
대형 반도체는 단기 저가 매수
기회로 접근.



Hedge with Energy/Defense (에너지/방산 헷지)

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단기
소멸 불가능.

10년물 국채 금리와 WTI 상승에
대비해 포트폴리오 내 에너지,
해운, 금/엔화 헷지 비중 확대 유지.



Watch the CPI Pivot (물가 지표 확인 후 진입)

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6월 CPI
(목표치 연 3.8%, MoM 0.2%
하회 여부)가 분수령.

인플레 압력 완화 확인 전까지는
코스닥(780선) 추가 하락 압력에
유의하며 관망세 유지.